

별첨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6건)

	사례	주요 내용
최우수 (1건)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샌드박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우수 (2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전자금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금융혁신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결합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혁신 추진 금융회사가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마련 (‘19.9.4일 발표, ‘19.10.8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Negative 방식으로 확대(新기술 법제도 반영), 투자 실패시 고의중과실 없으면 제재 감경·면책
우수 (2건)	오픈뱅킹 실시 (금융혁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의 전면개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19.2.25.)」 발표 -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실시(10.30.)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한 후 18개 은행 및 핀테크기업을 포함하여 전면실시(12.18.)할 계획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전면시행 준비과정에서 적극적 의견 청취 및 유연한 행정처리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및 참가기관의 적극참여 유도
장려 (3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가계금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신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상품으로 활용되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총량의 증가 없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상품 고안 금리변동의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등 기존대출을 대출잔액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을 출시
	新회계기준發 ‘매출·부채쇼크’ 막는다 (기업회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부터 적용될 新리스 기준 하에 해운업계와 화주 간 체결한 CVC 계약을 더 이상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우려가 있었음 新리스 기준서 해석·적용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新리스 기준서에서 경과 규정 존재 확인 하고, ‘19년 이전 체결된 CVC계약은 계약종료시까지 매출로 인식 가능하다는 내용의 감독지침 발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전자금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분야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발맞추어 낡은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클라우드 이용시 안전성 확보 기준을 마련해 보안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이용 관련 관리·감독체계는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